

# 독경에 불교의 보편화 · 대중화 · 세계화의 길 있다 (讀經)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김선근 교수는 6월 11·1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퇴임기념 '불교와 인도종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18일 함께 진행된 퇴임법회에서는 저서 <법화경 신앙과 사상> 출판기념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김선근 교수는 퇴임법회에서 "비인권·비인간의 정산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발원하고 30년간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던 간디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간디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학문적 회향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5년간 <법화경> 사상을 연구했다"며 "<법화경>의 회상승 귀일승(會三乘 歸一乘)사상이 남북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례 진행된 강의를 정리했다.

정리=이상연 기자



퇴임기념으로 출판한 김선근 교수의 <법화경 신앙과 사상>

## 인도를 알면 불교가 보인다

불교는 인도의 지리적 특성·풍토적 성격·인종적 복잡성 등에서 발생한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한 반도의 15배가 되는 크기의 인도에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강줄기가 도처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정글, 사막, 히말라야의 광막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불교는 열대(熱帶)와 한대(寒帶)가 공존하며 지역마다 사람들은 판이하게 다른 생김새를 갖고 각자의 풍속과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는 인도에서 생겨났습니다.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적 실체 또는 원리인 브라만(Brahman, 梵)과 생명인 '나'를 뜻하는 아트만(Ātman)이 하나임[-一如]을 고찰한 초기 우파니샤드(B.C. 800~500)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사상의 발전에도 지역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인디스강 유역과 갠지스강 상류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상이 갠지스강 하류로 중심을 이동합니다. 사상적 개척 계급은 브라만에서 크샤트리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비(非)바라문계의 새로운 종교, 자유사상운동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도 사성(四姓)의 가장 뒷자리에 있던 바라문과 달리 사문(Śramaṇa)이 종교지도자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문이란 일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촌락이나 도시에 유행하면서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출가자들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은 많은 사상가들을 배출했고, 자유사상을 제창하게 됩니다.

사상의 변혁기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중인도가 많은 출가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중인도에서는 벼농사 기술이 발전해 식량이 풍부했고, 부패가 빨라 조리한 음식이 남으면 버렸기 때문에 사문의 배출도 용이했습니다.

## 업의 과보를 법칙으로 승인한 불교

윤회전생(輪廻轉生) 사상은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 무르익은 세계관입니다. 윤회를 인정하려면 윤회하는 주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카르마(Karma, 業) 사상은 불타 이전부터 있었지만 당시에는 업의 과보가 법칙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다. 불교와 함께 유력한 종교였던 자이나교도 업의 과보를 인정했지만, 그들은 행위의 결과를 벌(罰, danḍa)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불교는 카르마를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업(業)의 인과율'로서 조직했습니다.

또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 즉 자아(自我)의 개념은 영원불변하고 무한한 희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인간관은 우파니샤의 철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온(五蘊)의 어느 것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없으며 인간에게 오온의 화합 이외에 따로 오온을 소유하는 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단지 항상 변하고 제법들의 묶음 자체로서 오로지

현상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우연론이나 숙명론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우연론'이나 '숙명론'을 회통하는 연기설을 주장합니다. 사상사적으로 석가모니는 정통바라문 시대에(B.C.1500~500)의 세계관인 '전변설(轉變說, pariṇāma-vāda)'과 비바라문계의 육사의도의 세계관인 '적취설(積聚說, Ārambha-vāda)'을 회통한 것이 연기설입니다.

## 석가모니의 실천

석가모니는 당시 시대사조의 두 주류인 짜르와 까의 '쾌락설'과 자이나교의 '고행설'을 중도로



## 불교는 고정관념 깬 자유사상운동

###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라"

회통해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했습니다. 팔정도에 의해 어느 고정적인 입장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석가모니의 인식과 실천은 연기설에 근거한 중도의 삶입니다. 연기의 진리는 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空)이요, 공은 '있다' '없다' 하는 무유의 이변을 떠난 것이므로 중도(中道)입니다.

석가모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사람은 출신성분에 의해 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민이 된다. 출신을 묻지 말고 오직 행위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 <금강경>의 실천

<금강경>은 인도의 모든 인종, 종파, 남녀, 카스트 등의 차이를 넘어 보편성 획득을 위해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제시한 종교적 이상을 담은 경전이요, <금강경>의 인식과 실천은 "인도의 모든 윤리적 실천은 형이상학적 깨달음에서 유래한다"는 페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강경>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길은 행복과 불

국도 실현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경>은 대승운동의 일환으로 반야바라밀을 최초로 명쾌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제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반야(般若) 즉 지혜(智慧)이며 보살의 인식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종교적 개념의 측면에서나 사회실천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이타의 서원을 발하고 깨달음을 구해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실천이 부파불교시대에 들어오면서 희박해졌던 이것이 '석존의 불교'라는 대승불교운동을 통해 원래의 관점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는 출제가라는 분별된 입장을 버리고 법의 자각과 보살행을 강조합니다. 보

살째, 진리가 자기의 참 생명근원임을 자각하고 진리를 자기 생명처럼 존중할 줄 아는 습관을 <금강경> 제17 '구경무아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가 자기의 삶과 역사에 주인과 주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찰라찰라 자기의 내면세계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금강경> 제32 '응화비진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넷째, 항상 진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의경전을 매일 수지·독송·사경하는 습관을 <금강경> 제8 '의법출생분'을 수지 독송하며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에 나타난 보살의 인식과

실천의 이념이 무상으로부터 무주상보시가 나타난 것과 같이 불성생명(佛性生命)의 인식에서 만유일체관(萬有一體觀)으로 나타난 동체대비의 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강경> 제4 '묘행무주분'의 수지 독송을 통해 각 분야에서 보편화·대중화·세계화 해야겠습니다.

## 김선근 교수는...

1946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했다. 1965년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을 역임, 문학석사, 철학박사, 연세대 교육대학원 도덕 및 종교교육 교육학 석사, 인도 바라나스 힌두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1994년 인도 네루대 한국학 담당 교환교수, 2005년 일본 용곡대 교환교수로 강의했다.

1991년 외무고 등 고시 시험위원, 2000~2001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법인사무처장, 2001~2005년 인도철학회 회장 역임, 2008~2010년 한국불교학회 회장 겸 이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인도정통철학과 대승불교>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The Philosophical Thought of Mahatma Gandhi> <마하트마 간디 연구> <베단타 철학> <여의주> <바가바드 기타> <간디 서전> <힌두 스와라지> 등이 있다.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 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원출판사 | 김상복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100% 국내산 참웃나무 진액 참웃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웃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웃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호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웃을 만들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웃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웃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